



乙酉年 새해를 맞으며...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희망의 2005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한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2005년은 참여정부 세 번째 해로, IT 분야에서도 지난 2년간 수립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IT 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작년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취업난 해결과 침체에 빠져있는 내수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국내·외 IT경기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은 않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R&D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중국·인도 등 후발 경쟁국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과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해는 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도약을 가속화해 나갈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금년에 다음과 같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에 체계화한 「IT839 전략」의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IT분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상반기 내에 WiBro 사업자 선정과 지상파 DMB 방송국 허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말까지 지상파 디지털 TV 가시청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8대 서비스의 도입·활성화와 3대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9대 신성장 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SW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의 육성과, IT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IT SMERP」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첨단 IT콤플렉스 조성 본격화 등을 통한 동북아 IT허브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프라 구축 등 지금까지 이룩한 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를 더욱 고도화·지능화하는 지능기반사회, 「u-Korea」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첨단 인프라(BcN, RFID/USN, IPv6)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홈 네트워크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IT 기술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삶의 질이 균등하게 향상되고, 정보의 생산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 중장기 계획(2004-2008년)」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구제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유비쿼터

스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도입·확산에 따른 정부 CTO로서의 정통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화 평가체계의 강화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최근의 내수 침체, 청년실업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교통·물류시스템 개선과 행정 및 지식DB 구축 등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WiBro, 텔레매틱스 등 신규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통신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규제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한편,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상호접속제도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전파방송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끊김없는(seamless) 무선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u-Korea 건설 지원을 위한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고 주파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추진하며, 디지털방송의 전국망 구축과 방송수신 환경개선, DMB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구조개편 대책의 마련과 IP-TV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도입 및 디지털 양방향 CATV 활성화 등을 통해 융합 관련 제도 정비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IT협력 가속화를 위해서 세계적 IT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IT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FTA 등 통상협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내실화하여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사업 분야에서도, 예상되는 사업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6시그마 경영기법 도입 확산, 조직 및 인력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저는 금년에 계획한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에 의해 조금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e-Korea에서 u-Korea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브랜드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인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간다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유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